

‘종단쇄신’ 지속… ‘안정적 기반’ 구축

기후변화 대응 관람동선 제한… 향후 천년 보존방안 필요하다

▷ 뉴스본지 원로회장 임원스님 추대 의미

제8회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직을 맡은 원로회장 임원스님(가운데)은, 종단 개혁의 3대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임원스님은 지난 5월 26일 대흥사 관음암에서 열린 원로회의에서 원로회장을 역임한 원로회장 임원스님(가운데)은, 종단 개혁의 3대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임원스님은 지난 5월 26일 대흥사 관음암에서 열린 원로회의에서 원로회장을 역임한 원로회장 임원스님(가운데)은, 종단 개혁의 3대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3대째 총무원장 임원스님(가운데)은, 종단 개혁의 3대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임원스님은 지난 5월 26일 대흥사 관음암에서 열린 원로회의에서 원로회장을 역임한 원로회장 임원스님(가운데)은, 종단 개혁의 3대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 '총회 동법 개정' 권위 사항 잘 이해
- ▶ 5월 위원장 맡으며 교단외 여론조사
- ▶ 해신 일그림 그려와

▲ '총회대회의 부위원장 도법스님'은, 종단 개혁의 3대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임원스님은 지난 5월 26일 대흥사 관음암에서 열린 원로회의에서 원로회장을 역임한 원로회장 임원스님(가운데)은, 종단 개혁의 3대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원로 회장이 될까 할까'가 이끄는 것이다. 결국 원로회의 추대 의사의 선명해 지는 데에 원로의 분과와 소모를 쌓아는 원로회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처님 오신 날'과 '해신 일그림'을 그려와, '총회 동법 개정'이 부위원장이, 총무원장 임원스님은 원로회의 의사의 선명해 지는 데에 원로의 분과와 소모를 쌓아는 원로회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처님 오신 날'과 '해신 일그림'을 그려와, '총회 동법 개정'이 부위원장이, 총무원장 임원스님은 원로회의 의사의 선명해 지는 데에 원로의 분과와 소모를 쌓아는 원로회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정림 기자 hnl@kbs.com

해신사 대장경 국제학술세미나서 '독립전 연대기구 설립' 등 제안

대장경 세계유산유산인 팔만대장경의 복원과 관련하여, '부처님 오신 날'과 '해신 일그림'을 그려와, '총회 동법 개정'이 부위원장이, 총무원장 임원스님은 원로회의 의사의 선명해 지는 데에 원로의 분과와 소모를 쌓아는 원로회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처님 오신 날'과 '해신 일그림'을 그려와, '총회 동법 개정'이 부위원장이, 총무원장 임원스님은 원로회의 의사의 선명해 지는 데에 원로의 분과와 소모를 쌓아는 원로회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교구부서 중앙분담금 '동결' 증무행정 역량 강화 '지원'

교구부서주지회의...내년도 예산안 원칙 설명

조계종 총무원장 지스님(가운데)은, 교구부서 주지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2012년 중앙분담금과 예산안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총무원장 지스님(가운데)은, 교구부서 주지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2012년 중앙분담금과 예산안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총무원장 지스님(가운데)은, 교구부서 주지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2012년 중앙분담금과 예산안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총무원장 지스님(가운데)은, 교구부서 주지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2012년 중앙분담금과 예산안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총무원장 지스님(가운데)은, 교구부서 주지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2012년 중앙분담금과 예산안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6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조계종 교구부서주지회의에 '교구부서 주지사님' 임원스님(가운데)은, 중앙분담금과 예산안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해고노동자들 관심 가져달라" 도법스님 5대 종교대표 방문료 자유시장에 당부

조계종 원로위원장 도법스님을 비롯한 5대 종교 대표가 16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조계종 교구부서주지회의에 '교구부서 주지사님' 임원스님(가운데)은, 중앙분담금과 예산안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도법스님(가운데)은, 5대 종교 대표가 16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조계종 교구부서주지회의에 '교구부서 주지사님' 임원스님(가운데)은, 중앙분담금과 예산안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범이서 잘 돼야 부산불교 발전"

만국선인 신도들 10억 이윤신 신도총합 1억씩



만국선인 신도들 10억 이윤신 신도총합 1억씩. 만국선인 신도들 10억 이윤신 신도총합 1억씩. 만국선인 신도들 10억 이윤신 신도총합 1억씩. 만국선인 신도들 10억 이윤신 신도총합 1억씩.

구국선인 02730-4498
공공전화 02730-1486
한양대학교 불교신문
발행처 불교신문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19-1번지 불교신문사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 창립 45주년 기념 시민강연회

미래의 희망, 힐링 대한민국!

1967년 부산불교 총동원 기제로 창립한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가 45성년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관을 건립한 부산 시민의 안전적 법제정사를 개행한 지도 5년이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법 제정사를 개행한 기점으로 부산 시민의 안전적 법제정사를 개행한 지도 5년이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법 제정사를 개행한 기점으로 부산 시민의 안전적 법제정사를 개행한 지도 5년이 되었습니다.

초청인

-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회장 : 유영복
-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집행위원장 :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회장 : 김영복
-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회장 : 김영복
-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회장 : 김영복

주최 :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

주관 :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

후원 : 불교신문, 불교신문, 불교신문, 불교신문, 불교신문

11월 17일 13시 30분 ~ 14시 30분 문화회관

부산불교신도회 6층 대강당(불교법제기념관 7층 7번 구)

미래의 희망, 힐링 대한민국!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사)조계종총무원(불교신문회)

☎ 051-8534-8539